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

(주민 자율의 강경을 역사도시 만들기 구상)

안근철 연구원(지역활성화센터)

한상욱 부장(충남발전연구원)

목 차

I. 강경의 현실과 반성 / 논의의 전제	57
II. 강경의 미래 모습 / 지향점	58
III. 강경의 과거와 미래	60

I. 강경의 현실과 반성 / 논의의 전제

1. 강경의 현실(긍정-부정-과제)

-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읍(규모), 전국적 인지도의 젓갈(산업), 활용가능한 확장성의 한계(토지이용), 밀집된 역사문화자원(잠재력)
 - ① 우리나라 전국 읍지역중 가장 작은 면적 : 7.01km²(행정리 13, 자연부락 28)
 - ↔ 읍 승격(1931),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왜 확장, 확대, 발전하지 못하였을까?
 - ☞ 성장 동인의 발굴 및 점진적 육성
 - ② 젓갈산업 : 강경을 지역경제의 지탱 부문. 증가하는 점포(정체기).
 - ↔ 산업적 기능 확대(세계적인 명품), 계획적 관리(품질관리), 젓갈산업의 지속 확대성은?
 - ☞ "강경의 미래 이미지 = 젓갈도시"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속가능한 정체성 정립
 - ③ 토지이용 및 경관: 도시적 토지이용의 제약 및 확장 한계
 - ↔ 계획적 기능·시설의 지속가능성은? 민간영역의 무질서한 건조환경?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 / 앞으로 누가 강경읍에 살것인가?
 - ④ 밀집된 역사문화자원 :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테마성의 자원
 - ↔ 보존·활용에 대한 인식(재산권 보상), 소유자와의 마찰, 자원, 운영·관리의 책임(경제적 부담)
 - ☞ 주민의의식 전환(나보다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의 발견.

2.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

- 고령화 지속, 인구성장의 한계
- 장치산업, 대규모 건설 → INBEC산업(지식산업)으로 전환
- 경제 총량의 확대, 규모의 경제 → 삶의질 우선, 규모의 경제+연계의 경제
- 외연적 확장, 대규모 개발(외생적 발전) → 도시공간의 In-fill, 내발적 발전
- 효율성·경제성 중시, 경제적 균등화 → 형평성, 지속가능성, 기회의 균등화
- 하향식(Top down) → 상향식(Bottom up)

II. 강경의 미래 모습 / 지향점

1.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

- ① 강경은 무엇 때문에 흥했고, 무엇 때문에 쇠퇴(중)하는가?
 - 수운에 의한 상업도시로의 성장,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 ※ 물산의 이동·집산 → 인구의 밀집 → 경제적 부의 축적 → 파생문화의 확장(유흥, 종교, → 새로운 조직·형성·권력의 집중 → 공공기관의 개입 및 확대
 - 현대 : 중앙정책 흐름에 대한 대응력 미흡, 교통 수단의 전환(수운→육운) 및 발달과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강경읍 기능의 적응 미흡
- ② 강경에 자리잡은 특색있고, 저류에 흐르는 문화는 무엇인가?
 - 서민문화 : 관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발전한 도시임
 - 상업문화 : 물자의 중계로 인한 이익 취하고, 문화를 파급시킨 도시임
 - 공동체문화 : 조직 및 영역 확대를 위한 의기투합 및 공동체 형성
 - 애국·충의의 문화 : 절대적 가치관의 보급·확대(종교), 불의에 대한 불타협
- ③ 근대부터 현재까지 강경 발전으로 인한 수혜자가 극소수이지는 않았는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 현재, 강경 경제의 지탱부문은 젓갈산업이고, 젓갈산업 종사자와 비종사자간의 대립
 - 경제적 수혜의 양극화, 계층간의 양극화, 세대간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
- ④ 향후 강경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은?
 - 일반적인 읍급 도시와 비교시 농림어업의 지원을 받고,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도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고부가가치 지식경제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 미래의 강경의 지역경제를 지탱할 자원은? 사람! 또 무엇?
- ⑤ 향후 강경의 주인은 누구인가?
 - 고령화의 지속에 따른 지역발전의 수혜적 대상자는?
 -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이탈로 인한 활력 유지에 대응한 주체는 누구?

2. 지향점

방향	강경발전을 위한 미래의 도시상을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 그리되, 강경읍이 보유하고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성장동력화 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함께 더불어가는 여건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미래상의 공유 • 자발적 참여 기회 보장 • 지역사회 분열 요인의 공동 대응 • 나보다는 지역사회 우선 •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 		
비전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		
목표	살아있는 역사문화	활력있는 지역 경제	더불어 번영하는 지역공동체
추진 전략	역사가 살아숨쉬는 도시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하기	뿌리깊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Ⅲ. 강경의 과거와 미래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

1. 강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 강경의 역사
























- 17세기초 황망한 습지인 곳에 김씨(金氏)부부가 옥녀봉 부근의 금강연변에 최초로 이주하여 주거지로 정착되었다고 구전
- 1500년대 말 김장생 선생이 문하생을 가르침, 문인취락 형성
- 영정조시대부터 중계 하항으로서 기능이 활성화되어 조선 3대 시장으로 발전, 강경포구는 전국 2대 포구(원산과 함께)로 발전, 각종 해산물과 공산품의 교역
- 내륙교통 발달(경부선 1905, 호남선 1914)로 쇠퇴(강경의 역사와 문화, pp.54-56), 6.15 시가지 전투와 폭격으로 70% 이상의 근대 건축물과 문화유산 파괴
- 일제강점기: 미곡수탈기지, 충남 최초 노동조합운동, 항일운동(최초 신사참배 거부, 최초 일본역사수업 거부, 충남 최초 대규모 만세운동)
- 한국전쟁(6.25) 83위 강경경찰서 경찰관 순국, 66명의 병촌성결교회 교인 순교, 이종덕목사 순교, 안순득여사 순교, 한완봉의 반공, 이화교회 교인 3인 순교

○ 강경의 역사적 특징

- 상업도시 : 강경은 중계하항으로, 염장문화의 젖갈로 지속 성장한 도시
- 서민문화 : 계획적인 도시가 아닌 자연발생적인 도시이며, 장시문화와 결합된 전형적인 서민문화를 보유
- 애국 충의문화 :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타협하는 애국·충의의 문화
- 전국 최초 다수 : 기호유학의 최초 강학소(임리정), 지역 최초 사립학교(만동학교, 1908), 충남 최초 노동조합 경성 및 노동조합 운동(1920-), 신사참배 최초 거부지, 충남 최초 만세운동, 최초 일본역사 수업 거부, 스승의 날 발원(강경고등학교, 1958), 전국 최초 경로당(만수재, 1956), 경로현장비(1983)

○ 강경의 대표 역사문화자원

- 내용 : “근대도시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마을 지정 청원”에서 정리한 주요 자료와 사진 등을 소개

조선				
	최대상권(1903)	소금상권(1905)		
일제				
	1920년대 강경 서창포구	1930년대 강경포구	1930년대 강경역	1920년대 강경 상시장
				
	군량미 도정공장	강경시내 문성당 앞	강경갑문	강경 하시장
				
	강경 대홍수	민방위 훈련	가장행렬(1940년대)	중심가
				
	강경 노동조합(1925)	강경 등대		
광복 이후				
	강경 포구(60년대)	옥녀봉과 포구(60년대)	강경 포구(60년대)	옥녀봉에서 바라본 강경(60년대)
				
	강경경찰서(60년대)	황산대교 기공식(1985)	강경 전경(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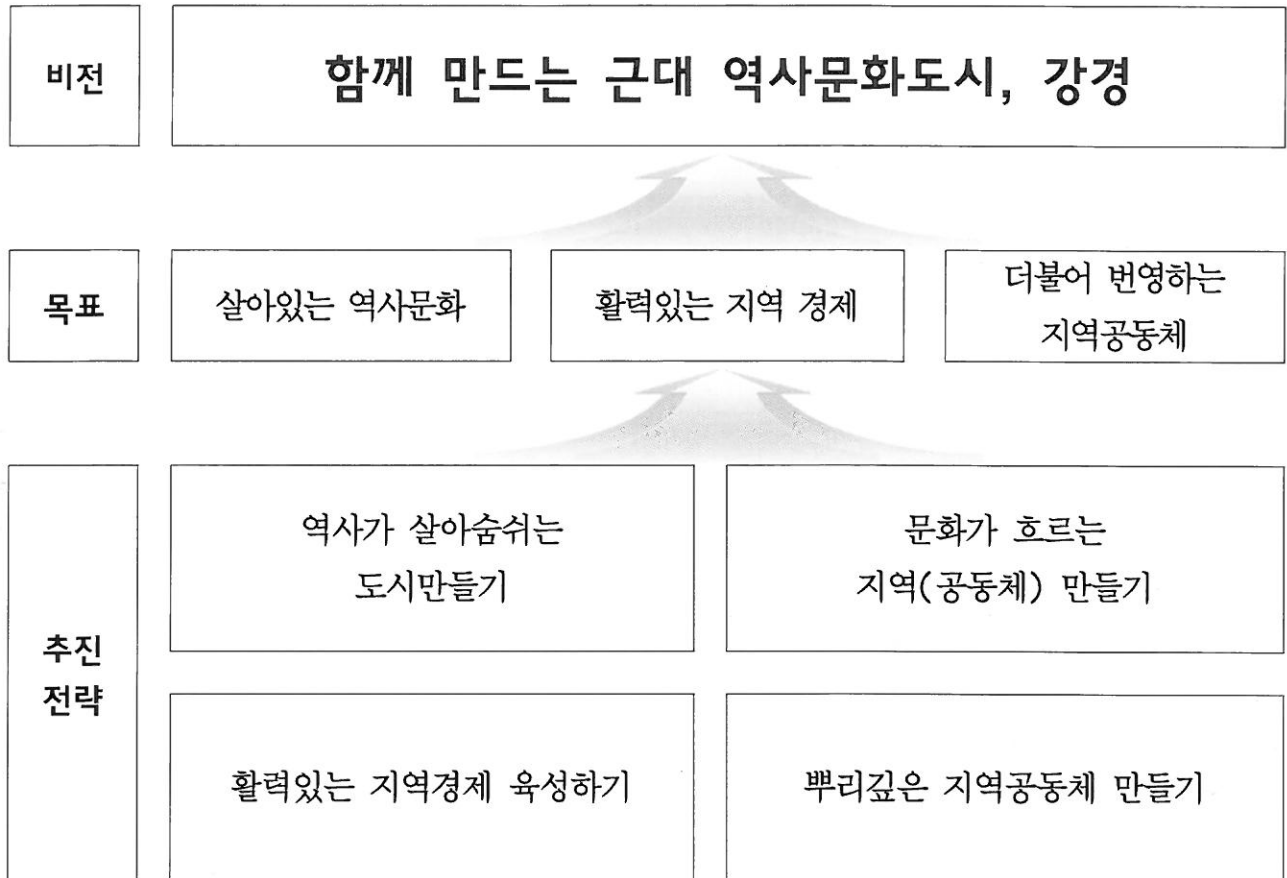
2.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 강경읍의 지속적인 쇠퇴에 대한 지역의 위기의식 공감, “강경 되살리기 운동” 전개(1998-)
 - 강경지역사회(번영회 등), 논산시, 충청남도가 공조
 - “강경 되살리기 운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 중앙정부의 소도읍 육성정책 기틀 마련
- “충남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기본계획(2001)” 추진
 - 충남내 지역문화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한 기틀 마련
 - 고도 역사환경 보전정비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 역사문화환경조성에 문화적 기반 구축
 - 근대도시로서의 강경의 정체성 확립 및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전·정비 필요성 인식 계기
- “강경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 추진(2005-2008)
 - 논산시 주관, 강경지역사회(번영회 등) 참여,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
 - 실질적인 자원 투자로 강경발전 가속화(하드웨어 중심) ↔ 산업, 홍보 등의 젓갈산업, 가로환경정비, 국제현상공모 실적 미흡
- “강경지역 역사문화탐방코스 정비(2009, 논산시)” 추진
 - 부각되고 있는 기독교 성지순례코스를 중심으로 관광명소화
 - 역사문화환경의 재조명과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움직임
- “강경 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2012, 논산시)” 추진(현재 진행중)
 - 강경 근대 역사문화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 및 창조적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 거점지구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
 - 근대건축물 매입·복원, 한일은행 활용, 근대상업거리 조성 등
 - 역사문화환경의 재조명과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움직임
- 지역사회 주도의 “역사도시 강경 만들기” 추진
 - 강경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발간사업(강경기독교성지순례코스,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설립·운영(2011. 4. 15-):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발표, 학술세미나, 출판
- 강경 역사관 개관(2012. 9. 4), 근대역사전시관 개관(2013. 10. 6)
- 강경역사문화학교 운영(2014. 7. 10-8. 28)
- 관련 주민조직(단체) 간 공조 및 협업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노인회 등
 - 강경번영회, 자원봉사회, 새마을금고, 영농조합법인 등
- 과거 개발방식에 대한 반성과 주민 주도에 의한 지역활성화 추구
 - 내용 : 외형적 개발방식의 치중, 단편성에 그치는 사업, 관주도로 인한 지속가능성 미 담보
 - 지역공동체 주도, 역량 강화, 거버넌스 필요성 인식

3. 이제 우리는 함께 상상하고, 꿈을 그리며, 그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과제

추진전략	계획과제	세부사업	핵심사업	비고
1.역사가 살아숨쉬는 도시만들기	① 역사자원 복원·활용 및 역사가로 만들기	· 매입 근대건축물 활용	○	
		· 경찰서 성역화		장기
		· 본정통 근대거리 조성	○	
		· 기독교 순례코스 정비		
		· 만동학교 복원(예술의집, 박범신 문학관)		
		· 호남병원 매입 및 복원·활용		장기
		· 금성다방 복원·활용		장기

추진전략	계획과제	세부사업	핵심사업	비고
	② 역사자산 발굴·수집·연구·교육	·미발굴 자산 조사·발굴·수집	○	주민 자율
		·어르신 강경이야기 수집		주민 자율
		·중고제 복원 및 동·서편제 교류		주민 자율
		·자원 등록·제도적 보전		
		·강경 역사 학습 동아리 운영	○	주민 자율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민 자율
		·전문기관(논산시문화원, 충남역사문화원)과의 교류·연구		주민 자율
		·강경 역사 교과서 마련 및 보급		주민 자율
	③ 역사도시다운 생활공간 만들기	·조례 제정		
		·경관협정, 건축협정(디자인코드 개발 및 적용)	○	주민 자율
		·생활공간의 재생(주택, 골목길, 공원 등)		주민 자율
		·작은공간 랜드마크화(배수장→물사랑 교육관)	○	주민 자율
2.문화가 흐르는 지역만들기	① 정신문화 연구·교육·콘텐츠 개발	·항일, 반공, 개화, 경로, 스승 존경 콘텐츠 개발	○	주민 자율
		·체험·관광·안내 홈페이지 운영		주민 자율
		·SNS-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주민 자율
	② 생활형 예술·문화의 보급	·연극, 합창, 관현악, 사진, 그림, 댄스 등 동호회 운영 및 평생교육과 연동 및 발표회 상시 개최	○	주민 참여
		·다문화 교류 거점 형성 및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율
		·주부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자율
		·Fun-樂 페스티벌 개최, 거리 퍼포먼스		주민 자율
		·초·중등학교 지역문화학습 교과목 채택 및 현장 학습		
	③ 문화·예술 창조	·박범신 작가와의 만남의 장	○	주민 자율

추진전략	계획과제	세부사업	핵심사업	비고
3.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하기	거점 조성	· 박용래 등 예술인 순환 모임		주민 자율
		· 예술인 초청 강연		주민 자율
		· 지역주민 창작 발표 대회	○	주민 자율
	① 젓갈산업 경쟁력 강화	· 수출 등 홍보 마케팅 개선		
		· 관련 조직 확대 및 재구조화		주민 자율
		· 젓갈상점가 환경개선		
		· 문화코드 적용	○	주민 자율
	② 전통시장·중심상 점가 활성화	· 환경개선(공공디자인 적용)		
		· 마케팅 개선		주민 자율
		· 전통음식 개발 및 케이터링 서비스		주민 자율
		· 염장음식 개발(젓갈 백반)	○	주민 자율
	③ 지역문화기반 신 산업 육성 및 관 광활성화	· 비지터센터 운영(노동조합)	○	주민 자율
		· 공방 조직 운영(한지 공예 등)		주민 자율
		· 챌린지 숭 운영(건양대 실용학과)		
		· Living Lab 적용 및 운영	○	주민 자율
		· 워터프론트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주민 자율
4. 뿌리깊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① 지역역량강화 교 육	· 마을만들기 교육	○	주민 자율
		· 리더(후계자) 육성	○	주민 자율
		· 공동체 활동		주민 자율
		· 지역마케팅 교육		주민 자율
	② 주민주도 추진체 계 구축	· 통합추진체계 구축(위원회) - 역사문화연구원, 강경번영회, 주민자치 위원회, 전통맛깔짓, 상가위원회 등	○	주민 자율
		· 주변지역과의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자율
		· 전국 사회적 경제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자율
		· 종교단체와의 교류 협력체계 구축		주민 자율
		· 외국과의 교류 협력체계 구축		주민 자율
		· 전문가·조직과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		주민 자율
	③ 주민조직의 자생 기반 강화	· CB, 사회적 기업 등 운영·활성화 - 기념품 판매, 카페 등 부대사업	○	주민 자율
		· 협동조합 조직 운영	○	주민 자율
		· 기금 모금		주민 자율
		· 국비·도비·시비 확보		

4. 우리는 강경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경은 물을 이용한 물자의 이동으로 나루와 포구가 발생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강경에 있어서도 지금의 강경이 있게한 근원적인 에너지원입니다.
-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이러한 물이 남겨놓은 역사적 흔적으로서의 다양한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강경은 미래에도 변치않고 물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물의 혜택을 어떻게 가꾸고, 계승하며, 발전시켜나가느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우리 개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구르는 Snow ball처럼 뭉치면 그 힘은 커질 것이고, 주민간의 결속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믿기에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 첫째, 물이 남겨준 혜택으로서의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다 함께 학습함으로서 강경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고, 우리 다음세대에게 새로운 가치를 남겨주려합니다.
- 둘째, 우리는 혼자만의 강경이 아닌 논산시, 충청남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강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고립된 강경이 아닌 개방형의 강경을 만들고자 하며, 인식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손잡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외지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강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셋째, 물은 과거에도 흘렀고, 현재도 우리마음속의 문화로서 흐르고, 미래에도 다양한 가치로 우리들 마음에 흐를 것입니다. 강경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 “강경 = ?” → “강경 = 근대 역사문화도시” 를 꿈꿉니다.